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금산사, 선운사는 10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아시아 문화축제 '다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은 개막식 이후 열린 각국 장기자랑 시간에서 자신의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고 무용을 선보이고 있는 이주민들.



지방 다문화축제로는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참석했다. 네팔 문화부에서 예물을 올리고 있는 자승 스님.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됐다. 투호를 체험하고 있는 이주민들.



태국 불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장을 행진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는 9개국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2000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화환을 받는 내빈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자승 스님, 진오 스님.

세계는 한송이 꽃... 함께 하니 모두 '한마음'

2015 아시아문화축제 다꿈 어울림 축제

결혼과 취업, 유학 등 저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숫자는 어느덧 170만명. 이들 다문화 이주민들은 어느덧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공동대표 진오)와 금산사(주지 성우), 선운사(주지 경우)는 10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아시아 문화축제 '다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One world, One mind, One flower'를 주제로 동남아시아 9개국 2천여 명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9개 국가의 다양한 전통과 종교문화를 체험하고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행사는 과감하게 지방 개최를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더불어 (사)착한벚꽃, 지구촌 공생회, 전북불교네트워크, 국제 포교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그동안 열린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정문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상직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에서 거주하며 자국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돕고 있는 구미 산파스리(구미 이주민 법당) 스님 등 외국인 스님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라는 말

은 회자되고 있지만 국민이나 불자들이 그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향기롭고 고마운 일인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 이주민 법당 산파스리 스님은 "한국의 불교계가 이렇게 이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해 너무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을 다정한 이웃과 동반자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 선운사, 금산암, 참좋은 우리절, 거제 금강사, 울산 해남사, 진주 의곡사, 대전 현불사, (사) 자비명상 등의 사찰은 베트남 원오도량, 좋은이웃 등 이주민 법당, 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약속했다.

행사가 열린 화산체육관 주변에는 참가국과 이주민 법당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마치 아시아 불교박람회 연상케 했다.

전통과 문화로서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각국의 불교문화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태국, 미얀마, 베트남, 네팔 등의 이주민들은 각국의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전통무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각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음식 시식코너도 마련됐다.

한국의 사찰음식을 비롯해 아시아 참가국들의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한국전통의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의상 전시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함께 서로 어울리며 즉석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 즉석 노래자랑도 펼쳐졌다.

이밖에 불교의료자원봉사 단체인 '108 자비손'에서 마련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부인과 진료와 무료진료상담 부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 온지 9년째를 맞이한 랄 마니(네팔, 30세)는 "회사에서 재미있게 일하다가도 고국의 가족을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다"며 "네팔 출신의 같은 노동자들을 만나 고국소식도 듣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마련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진행된 국가대항 배구대회에서는 광주 외국인센터 인도네시아 팀이 몽골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또 이주민 법당별로 참가한 장기자랑에서 대상에는 화성법당 태국사찰이 우수상에는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사원과 캄보디아불교센터. 인기상에는 베트남 원오도량이 차지했다.

아시아 문화축제는 이주민들에게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민과 한국 일반인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일원"

회일스님 (아시아 문화축제 실무추진단장, 침묵은우리절 주지)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갈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 여성들과의 갈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갈등 속에는 분명히 차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양상을 어떻게 통합하고 소화하느냐는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2015 아시아문화축제" 실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회일스님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이제 당연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일스님은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돈만 벌여가는 집단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파트너로서 인정해야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전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칫 잘못된면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민들도 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차별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이번 아시아 문화축제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전북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제/의/신/간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스님 - 10년만에 「기적의 패치요법」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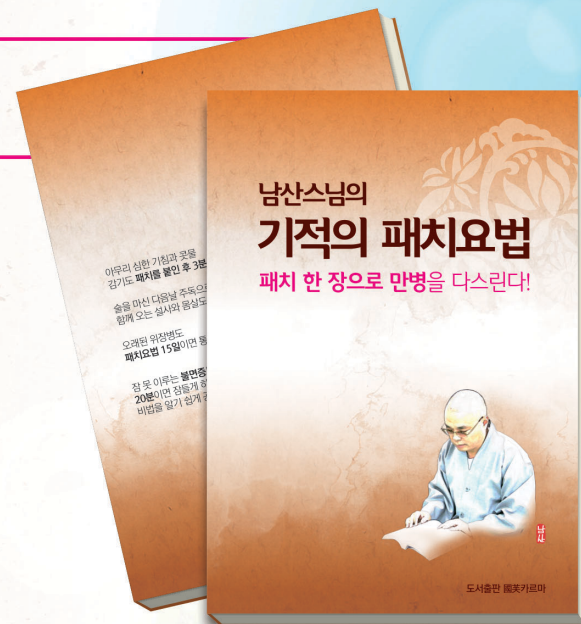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패치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술을 마신 다음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패치 한 장이면 **말끔!**

오래된 위장병도 패치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사!**



정가 10,000원 (포켓북)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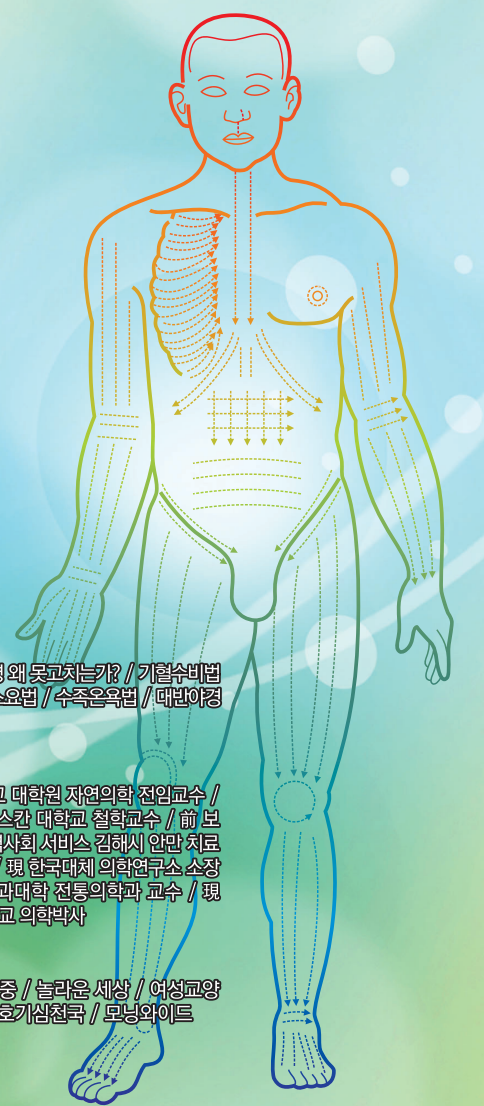
위장병 양노병 왜 못치는가? / 기침수비법 / 기적의 파스요법 / 수족온욕법 / 대변이정 / 카다슈

약력

前 녹석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문교수 / 前 동광전기소전 대학교 철학교수 / 前 보검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김해시 안민치로 재활기관장 / 現 한국대체 의학연구소 소장 / 現 동광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아차의과대학교 의학박사

방영

MBC 화제전중 / 늘라운 세상 / 여성교양 강좌 / SBS 동기생전류 / 모닝와이드



※기업체/포교원/사찰 패치요법 무료강연 신청 받습니다.(50명이상)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300-9928